삼성전자, 1/4분기 LCD "세계독주"

디스플레이서치, TV 시장점유율 22.2%로 1위 … Sony는 18.1%로 2위

삼성전자 LCD가 2008년 1/4분기 세계시장을 평정했다.

삼성전자 LCD의 대표주자인 LCD TV, LCD 모니터, LCD 패널이 각각 2008년 1/4분기 세계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성장성이 가장 높은 동시에 생산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LCD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금액기준으로 22.2%, 수량기준으로 19.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해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1위 독주를 이어 갔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글로벌 LCD TV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2.2%로 1위를 차지했으며, Sony 18.1%, Sharp 10.1%, LG전자 9.7%, Philips 7.8% 등이 뒤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는 19.6%를 차지하며 2위인 Sony(13.3%)와의 격차를 6%p 이상 벌렸다. LG전자(10.5%)는 2자릿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Sharp(9.1%), Philips(8.7%)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LCD TV 시장에서 2007년 1/4분기(235만7000대) 대비 70% 이상 성장한 413만6000대를 판매해 수량기준으로 7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가격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Sony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 Sony는 2008년 1/4분기 280만대의 LCD TV를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LCD TV 뿐만 아니라 LCD 모니터도 PC 생산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3/4분기 연속 금액과 수량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LC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7.1%의 시장점유율로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수량기준으로도 15.9%의 점유율로 3분기 연속 1위에 올랐다.

IDC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글로벌 LC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7.1%로 1위를 차지해 Dell 14.9%, HP 12.4%, LG전자 9.8%, Acer 7.7%를 제쳤다.

삼성전자는 수량기준으로는 15.9%로 1위에 올랐다. Dell 15.1%, HP 11.4%, LG전자 10.2%, Acer 9.1%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LCD 모니터 판매에 힘입어 2008년 1/4분기 전체 모니터 시장에서도 수량기준으로 16.3%를 차지해 7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LCD 세트제품 뿐만 아니라 패널에서도 2008년 1분기에 대형 출하와 매출, 전체 매출에서 1위를 석권해 3관왕을 차지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대형 출하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2286만5000대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대형 매출 및 전체 매출 부문에서도 각각 50억3900만달러와 54억3700만달러를 달성했으며, 2위인 LG디스플레이와 대만 AUO와의 격차를 10억달러 가량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TV, 모니터, 패널 등 삼성전자 LCD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은 경쟁기업보다 한 발 앞선 선점 투자로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철저히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0>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